

001-017

라우스의 야생 생물: 바다&강

라우스초와 구나시리 섬 사이에 있는 네무로 해협의 수역은 영양이 풍부하고 많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바다 환경은 겨울에 흘러들어오는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 덕분입니다. 유빙 아래에서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증가해 작은 풍년새우부터 거대한 향고래까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전망 데크나 투어 보트에서 고래, 큰바다사자, 돌고래, 쇠돌고래, 바다표범, 연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고래

고래는 이동하는 생물로 식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네무로 해협에는 넉넉한 식량과 깊은 바다가 있으므로, 거의 1년 내내 고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큰부리고래(2월~10월), 향고래(7월~9월), 밍크고래나 범고래(4월~7월)가 각 계절에 매년 이 해역으로 식량을 찾으러 옵니다. 구지라노미에루오카 공원(고래가 보이는 공원)의 전망 좋은 장소에서 고래를 관찰하거나 웨일 워칭 투어에 참가하시면 가까이서 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다표범과 큰바다사자

점박이물범과 띠무늬물범은 매년 겨울, 시레토코로 찾아옵니다. 또한 큰바다사자는 12월부터 4월에 걸쳐 활동합니다. 임신 중인 암컷 큰바다사자가 대부분이며, 네무로 해협의 풍부한 식량으로 영양을 보충합니다. 큰바다사자는 보트 투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연어

시레토코의 강에는 산천어나 곤들매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수종은 순수한 물이 필요하므로, 담수종의 존재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태평양에 서식하는 곱사연어와 흰연어는 8월부터 9월에 걸쳐 산란을 위해 시레토코의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무로 해협의 해안을 따라 있는 여러 장소에서 9월부터 11월에 걸쳐 상류로 향하는 연어를 볼 수 있습니다.